**운젠의 대중목욕탕**

운젠 온천가에는 많은 공중목욕탕이 있어 수세기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아 왔습니다. 지역사회의 목욕탕은 일본문화의 중요한 전통으로, 넓은 욕조와 마음이 편한 친구가 있는 지역의 목욕탕에서만 목욕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센토란 일반적인 대중목욕탕으로, 직접 물을 데우며 주로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광지로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온천이란 천연 온천수를 이용한 목욕탕으로, 온천 주변에 호텔이 들어서 있는 경우가 많고, 상당히 럭셔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운젠에서는 지역의 일상적인 공중목욕탕도 온천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심플한 시설에서는 천연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을 단 몇 백엔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목욕탕은 커뮤니티 단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각각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목욕탕은 남탕과 여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